

도·농 복합지역 송천2동 발전 비전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실시… 시정 운영방향 설명·주민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해 도·농 복합지역이자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이 계획된 송천2동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9일 전주용소중학교 강당에서 송천2동 주민과 시의원, 자생단체회원,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실시했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고향 사랑 기부제 흥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 현황 보고와 시정 운영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 시장이 방문한 송천2동은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 동으로, 현재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과 생태 환경이 우수한 백석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전주의 대변력을 이끌 거점지역 중 한곳으로 손꼽힌다.



우범기 시장은 9일 전주용소중학교 강당에서 송천2동 주민과 시의원, 자생단체회원,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 8기 시 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 도의 수도로!'와 전주의 대변력을 앞 당기기 위한 전주시의 비전과 철학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이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미동 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동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백석저수지 친환경개발 △농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등 송천2동 주민들의 관심사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어졌다.

시는 이날 시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거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오늘을 걷기 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살기 좋은 송천2동이 더욱 발전해 전주의 대변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종합 환경정비로 쾌적한 완산구 만든다

새봄맞이 청소환경·하천·공원·도로·가로정비분야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염의준)가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동절기 한파 등으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정비하고, 도심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하천 및 공원, 도로, 가로정비분야 종합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먼저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325명의 청소인력과 132대의 청소 차량을 투입해 19개 동 구역별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서부 신시가지 등 주요 청소취약지역에 대

해서는 상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봄철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완산구 19개 동에서는 자생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취약지를 점검하고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한다.

하천 및 공원분야의 경우 구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쓰인 하천 내 쓰레기를 정비하고 하천 주변 제초 및 유수 지장 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동시에 겨우내 추운 날씨로 인해 이용률이 감소했던 143개 공원과 10개 등으로에는 공공근로 인력 등이 배치돼 공원 내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

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원과 등산로, 하천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교체를 추진하는 등 하천 및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도로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비롯해 노후도로와 인도 등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도로분야 환경관리에도 집중한다.

또 육교와 지하보도, 터널 등과 같은 관내 도로시설을 1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도

로와 인도의 잡풀 등도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끝으로 구는 가로정비분야에서는 시민의 보행권과 차량 통행권 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노점 행위와 물품 적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이면도로 적치물의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골목길 적치물은 즉시 수거한다.

자진 정비 계도 이후에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괴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이 민족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염의준 완산구청장은 "새봄을 맞이해 동절기 동안 발생한 시민불편사항을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시민들이 따스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23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학술연구 분야 활성화와 보건의료 및 감염병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모 과제는 총 5편(지정주제 2편, 자유주제 3편)으로, 접수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다.

지정주제는 보건의료분야·건강검진 종합소견 제공 모델링 개발에 관한 연구 1편과, 감염병관리분야(환경 내 인수공통 감염 병원체 감염실태 조사 연구) 1편으로 나뉜다.

자유주제 3편은 건강검진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주제, 방법

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출자료는 연구 제안서 및 계획서 각 1부를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보건·의학분야 연구 관련 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면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전협 내부 위원회인 '메디체크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여기에 연구비는 편당 3000만 원, 5000만 원 내외로 총 1억 9000만 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협 홈페이지([www.kahp.or.kr](http://kahp.or.kr))에 공지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협 메디체크연구소(02-2600-0186)로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 빛낸 유품자원봉사자 선정

전주자봉센터, 시상식 열고 7명에 전주시장 표창 수여

평소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전주시민 7명이 '전시도시' 전주를 빛낸 유품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9일 전주시청 소회 의실에서 '2022년 4분기 유품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5명과 청소년 2명 총 7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사)한동문화예술단 공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동운 군(전일고등학교)과 곰솔나루작은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운영보조 활동을 해온 김성현 군(전일고등학교)이 시장 표창을 받았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입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금지 당부·따뜻한 격려 부탁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해(완산구 1건) 가해자 중 6명(60%)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치안현장 찾아 직원 격려

업무유공자 두화영 순경 포상 수여·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9일 솔내파출소 치안현장을 찾아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태형 서장은 심야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음주 피의자를 끌까지 추격해 검거한 업무 유공자 두화영 순경에 대한 즉상을 수여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